**교제와 나눔**

**ㆍ온라인 가정예배:**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.

예배당 예배로의 전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ㆍ성령강림주일:**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청년헌신예배로 드립니다.

설교-김요한 목사, 찬양 및 특별순서-청년들

**ㆍ말씀편지:**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.

**ㆍ헌금:**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,

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.

**ㆍ생일축하:** 송수미, 안지은, 한혁, 김용묵, 이유니, 김진, Jona Gu, 최용환

**\*\* 함께 기도합시다 \*\***

1)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.

2)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,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.

3)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. 예배당 예배로 잘 전환되게 하소서.

4)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,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.

5)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.

6)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.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시22:1-21 월/시22:22-31 화/시23:1-6 수/하박국1:1-11

목/합1:12-2:1 금/합2:2-11 토/합2:12-20 일/합3:1-19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74독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5월 24일** | **5월 31일** | **6월 7일** | **6월 14일** |
| **예배기도** | 박성희 | 김종권 | 정수연 | 한명일 |
| **말씀일기** | 김영희 | 이영환 | 전소현 | 송수미 |
| **안내위원** |  | | | |
| **헌금위원** | 가족 중 | | | |
| **애찬봉사** |  |  |  |  |

**37-21호 2020년 5월 24일**



**“너는 내 것이라”** (사43:1)

주일예배: 12:00 각 가정

유초등부예배: 12:00 각 가정

청소년부예배: 12:00 각 가정

토요기도회: 07:00 각 가정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잠시 휴강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63-139 2225

**교육/ 이영환 전도사** HP. 0163-143 2804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 | | --- | | 입례송/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/Eingangsgebet 요한 4:23-24 | | 찬송/Gemeindelied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| | 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| | 성시교독/Wechselwort 교독문 72번 | | 찬송/Gemeindelied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| | 기도/Gebet 박성희 집사  말씀일기/Bibeltagebuch 김영희 권사  찬양/Chor ‘주 은혜를 받으려’ 찬양대 | 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**시편 22:1-21** | | 설교/Predigt **‘내 하나님이여, 어찌하여’** | | 기도/Gebet 설교자  찬송/Gemeindelied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 봉헌/Kollekte ‘구원하소서’ 손교훈 목사 | | 교제/bekantmachung  주기도송/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 축복/Segen  **\*\*교회 구좌**  Baek, Han-Jin Kim  Bank: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  IBAN: DE29 3007 0024 0598 1931 00  BIC: DEUTDEDBDUE | |  |  |

**<설교>**

**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**(시18:1-21)

오늘 시인은 **첫 마디부터** 마치 하나님께 **대들듯이**, ”어찌(하여)….어찌(하여)….”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.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울부짖음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. 인간은 시편 21편에서처럼, 자신에게 이루어진 승리와 형통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, 본 시편 22편처럼,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, 어찌하여 귀를 막으시고,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, 하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. 시편이 귀한 것은,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양 극단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.

그러면,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답답해하며 **하나님께 따지듯 호소하는 이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?** 아닐 것입니다. 적어도 “내 하나님이여”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의 믿음의 깊이와 그 분량은 그 누구도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것은 어쩌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음을 기억합니다. “내 하나님이여, 내 하나님이여,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?....”(1a)

오늘의 시편을 통해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, **하나님의 마음을 이해**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**감사의 기도-찬양을 듣기 원하시지만, 또한 정직한 고백과 간절한 호소를**(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라 해도) 듣기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며, 그 삶 속에서 부딛혀오는 부조리함, 그로 인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직시하기를 원하시고, 그러한 **실존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기대**하십니다.

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이 성격이 괴팍하셔서,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여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은, **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부조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,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**입니다. 고난 속에서도, 혼돈 속에서도, 하나님의 부재 상황-답이 안 보이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, **인내와 소망의 학교에서 오랜 수업을 받아야만** 비로소 인간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, 우리에게는 **‘그러므로’의 신앙도 필요하지만, 때때로 ‘어찌하여’의 신앙도 필요**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, 내 마음의 답답함-안타까움을 솔직하게 부르짖는 일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.

본 시는 **크게 대조적인 두 부분으로** 나뉩니다. 오늘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는데요, 1-21절은 울부짖고 탄식하는 기도요, 22-3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입니다. 시는 그 구조를 통해, **울부짖음이 찬양이 되고, 고난은 영광이 되며, 탄식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**을 보여줍니다. 운동 경기들이 많이 그렇듯, 우리 인생에도 전반과 후반이 있습니다. 밤과 낮이 있습니다.

오늘의 시는 **‘다윗의 시, 인도자를 따라 아얠렛샤할에 맞춘 노래’**라고 제목이 붙어있는데, 여기 ‘아얠렛샤할’은 **‘사슴이란 곡조에’**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, 이 찬양은 이른 새벽부터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의 심정으로 노래하라, 그런 말입니다.

비슷한 심정이었을까요? **초대교회 성도들이 품에 꼭 안고 다니는 상징물이 바로 이 사슴**이었습니다. 밀려오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가던 그들은 자연스레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에 자신들을 동일시한 것입니다. 또한 슬픈 듯 목을 길게 쭉 뺀 사슴의 모습이,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신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

오늘의 시편 기자 다윗은 **크게 세 가지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호소**합니다.

첫째는, **원수로부터**입니다. 12-18절: 우리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 무엇들 즉 황소 같고(12), 사자 같고(13), 개 같은 것들(16)이 있습니다. 우리를 질기게 쫓아다니며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혹독한 질병이 그것일 수 있고, 지독한 가난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. 거듭되는 학대와 억압이 그것일 수도 있구요.

둘째는, **보통 사람들로부터**입니다. 6-8절입니다: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, 시인은 사람들의 조롱거리,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**7-8절은 더욱 생생**합니다: “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, /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**걸**,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**걸**, 하나이다”(7-8). 껄껄껄, 그럽니다.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도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,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. 우리 인생은 자주 실패하게 되고, 그로 인해 우리는 괴롭습니다. 그러나,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고, 조롱일 것입니다.

셋째는, **하나님으로부터**입니다.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1-2절에 집약되어 있지요.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‘나 혼자다’라는 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. 그런데, 하나님까지 날 버리셨다 생각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**하지만, 우리는 이 고통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** 합니다. 적어도 내가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면, 설사 지금 하나님은 눈을 감은 듯, 입을 다문 듯, 귀를 막고 계신 듯 보여도, 마침내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도, 내가 **‘나의 하나님’을 부르며** 따지고 있다면, 호소하고 있다면,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. 나는 이기는 길에 서 있는, 승리의 사람입니다.

**‘어찌하여’로 시작된 이 시는 ‘다 이루셨다’-“주께서 이를 행하셨다”(31)로 끝나**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.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생각되어 절망하지만,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. **신1:30-31** “너희보다 **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**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**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**이며 /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,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**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** 이르게 하셨느니라….“ 아멘! 사실 제가 31절까지 끊어 읽어서 그렇지, 다음 절인 32절까지 읽으면 내용은 이렇습니다. “….**하나** / 이 일에 **너희가**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**믿지 아니하였도다**.” 부디,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따르지 아니하고,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, 마지막절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, **이미 3절에서 우리는 승리의 단초를** 봅니다. 3절 “**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**, 주는 거룩하시니이다.” 1-2절의 저항적 호소에 이어 3절은 문장 진행상 **너무 비약이다 싶은데**, 사실 원문 상으로 보면, **‘그러나’**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 읽으면 더욱 정확한 뜻이 됩니다. 시인은 자기 개인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, **“그러나”**를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 해도, **그러나-**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**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**입니다. 그 기조 위에서, 오늘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으니, 한편 믿음이요 또 한편 **지혜**입니다.

여러분,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**오늘만을 보지 마십시오**. 과거의 좋은 날들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힘겨웠던 날들이었지만, 후에 돌아보았을 때는,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,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떠올리며, 오늘을 인내하십시다. 그리고, 어둠 뒤에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빛 속에 서 있을 나를 미리 그려 보며, 지금 여기에서 외쳐 봅시다. **11절** “**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**.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.” **주님, ‘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’**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**간절하고도 정직한 기도는**-설사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심지어 욕설이라 하더라도, 우리 생의 **새로운 시작**이 될 것입니다. 영혼의 어두운 밤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.

**기도:** 나의 하나님, 고통 속에서도-답답함 속에서도, 그래도 아버지께 호소합니다. 우리에게 가까이 하옵소서. 하나님의 부재 상황-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인내하며 ‘그럼에도 불구하고’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렵니다.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며,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!